

주기도문

▶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여는 물음

1.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2. 지금 당신의 주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 다시보기

1.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용서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용서와 수직적인 용서가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식의, “용서의 선후(先後)”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빛)를 무조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빛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빛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빛진 자의 비유는 우리가 서로 죄나 과실을 용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속에 계속되어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여기서의 죄 사함은 칭의(稱義)와 관련된 ‘원죄’이기보다는 성화와 관련된 ‘자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정결함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공동체의 다른 일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혹은 국가의 범죄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범죄에 대해 기꺼이 책임감을 느끼며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정리하기

1.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한을 쉽게 풀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웃이든 원수이든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모두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죄는 혼자 짓고 혼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 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에게는 물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받아들이면, 죄를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서도 혼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 모두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편에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는 기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구하시고 죽어도 못다 갚을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참된 용서를 가슴에 담고 우리 또한 용서를 실천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